



“세일의 금요일이 시작됐다!”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행사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2만7000여개 점포가 참여하는 전국적 세일행사이다.

뉴스

남은 송편이 떡볶이로 ‘맛있는 변신’

명절음식 활용한 간편 레시피

동태전에 야채·과일드레싱 ‘전 샐러드’
스파게티에 동그랑땡 넣으면 이색 별미

싱글족을 위한 남은 명절음식 활용 간편 레시피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다시 부치거나 데워 먹으면 신선한 맛이 떨어져 손이 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의 간편식 제품들을 활용해 남은 명절 음식을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참치캔 활용한 ‘나물 비빔밥’

남은 나물은 한데 섞어 비빔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쉽다. 여기에 참치캔 제품을 활용하면 영양가 있는 요리로 바꿀 수 있다. 기름기를 뺀 참치에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 고추장을 넣고 볶아주면 나물 비빔밥에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고추장볶음 양념장이 완성된다. 남은 나물과 함께 비비면 된다. 사조해표의 얼리지 않은 ‘생생참치’는 참치살을 최대한 살린 통살이 담겨 있어 식감이 뛰어나며, 어떤 요리에도 쉽게 접목이 가능하다.

●남은 전 활용한 ‘전 샐러드’

동태전, 고기전, 두부전 등을 전골이나 찌개에 넣어먹는 방법은 식상하다. 남은 전을 신선



한 야채와 곁들여 샐러드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약불에 노릇하게 구운 전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샐러드용 야채 위에 올린 후 드레싱을 곁들이면 완성이다. 드레싱은 전의 기름기를 가셔서 새콤달콤한 과일 드레싱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올가홀푸드는 국내산 과일로 만든 ‘올가 드레싱’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도 감귤, 고흥 유자, 토종 키위 품종 참다래 등 국산 재료로 만들었다. 유기농 현미 식초를 넣어 원재료의 풍부한 향과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동그랑땡 활용한 ‘토마토 스파게티’

동그랑땡이나 고기 산적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활용해 간단하게 미트볼 스파게티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스파게티 면과 소스가 하나로 구성된 시판 제품을 준비하면 수고를 덜 수 있

다. 사조해표의 ‘해표 스파게티’는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따로 끓여 만들던 기존 방식과 달리 라면처럼 끓는 물에 면과 소스를 넣고 일정 시간 끓이기만 하면 돼 누구나 쉽고 조리할 수 있다. 소스는 토마토, 크림, 로제 3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잡채 활용한 ‘유부주머니’

남은 잡채로는 유부주머니를 만들어 전골, 라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부로 주머니를 만든 뒤 잘게 자른 잡채를 채우고 이쑤시개로 윗부분을 고정시키면 된다. 황태 혹은 멸치로 우린 국물에 유부주머니와 두부, 채소, 버섯 등을 넣고 끓이면 시원한 ‘유부주머니 전골’을 즐길 수 있다.

●송편 활용한 간식 ‘치즈 송편떡볶이’

냉동실에 보관한 송편은 떡볶이에 활용해보자. 송편 속의 달콤한 맛과 소스의 매콤한 맛이 절묘하게 조화된 별미를 느낄 수 있다. 고추기름에 송편을 데우다가 고추장과 물엿을 넣고 볶는다. 완성된 떡볶이에 슬라이스 치즈를 얹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주면 고소한 치즈와 매콤달콤한 송편이 조화를 이루는 ‘치즈 송편떡볶이’가 완성된다. 매일유업 삼하치즈가 선보인 ‘4대 슬라이스 치즈’는 자연치즈를 슬라이스 형태로 만들어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푸마 ‘파워세이프’ 여성 몸매 살린 스포츠웨어

프로스포츠의 생존 키워드 중 하나는 ‘여성’이다. 저변 확대를 통한 관중 증가는 물론이고 이미지 제고로 중계권 및 스폰서 비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바로 여성이다. 실제로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여성 관중의 증가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프

로축구와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도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책 마련에 고심이다. 이제 여성들도 스포츠에 관한 한 호기심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직접 참여해 마음껏 즐긴다. 올 상반기에는 ‘에슬레저’가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머슬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운동하는 여성’이 대세다. 이에 발맞춰 업계는 여성 운동을 위한 상품을 쏟아낸다. 특히 유명 디자이너를 앞세워 ‘스타일’을 강조한 여성 트레이닝복은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스타일 강조한 여성 트레이닝복이 대세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푸마는 세계적인 스타리한나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여성러닝·트레이닝·피트니스 의류 컬렉션 ‘파워세이프(PWRSHAP)’를 8월에 출시했다. ‘파워세이프’는 여성용 트레이닝 의류 제품 3가지로 구성됐다. 신축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라이크라(Lycra) 원단을 사용해 압박효과는 극대화하고, 움직임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체 실루엣을 살려주는 본디드 테이프가 돋보이는 ‘파워세이프 타이즈’는 아랫배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부쩍 늘었다. 업계에서는 운동하는 여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 스타일을 강조한 트레이닝복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푸마의 파워세이프 제품.

사진제공 | 푸마코리아

는 탄탄하게 잡아주고, 하체 움직임은 자유롭게 해주는 레깅스 타입의 운동복이다. ‘핏’감을 살려 허벅지 근육을 타이팅하게 잡아줘 최대한 다리가 예뻐 보이도록 신경을 썼다. ‘파워세이프 재킷’은 허리선을 따라 내려오는 슬림한 핏을 강조했다. 몸매가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통기성이 높은 원단을 사용해 열기와 땀 배출이 뛰어나며, 운동할 때 근육 움직임을 잡아 주는 압박소재를 사용해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는 기능성은 기본이다.

2005년부터 스텔라 매카트니와 협업을 해온 아디다스는 ‘에슬레저 룩’이 급부상한 올해 초, 젊고 활동적인 여성들을 공략하기 위해 ‘스텔라스포츠’ 라인을 선보였다. 밝고 선명한 색상과 화려한 프린트가 조화를 이룬 스텔라스포츠 라인은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데상트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매장을 오픈하며, 1층을 20~30대 여성들을 위한 스포츠 공간으로 꾸몄다. 코오롱인터내스트리FnC부문의 ‘헤드’도 매출성장에 힘입어 여성스포츠웨어 애그(EGO) 라인을 올 하반기에 더욱 강화한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컬럼비아 ‘타이타늄’ 컬렉션 선택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가 프리미엄급 ‘타이타늄(Titanium)’ 컬렉션(사진)을 출시했다. 타이타늄 라인은 고강도의 격렬한 아웃도어 활동을 자주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능성에 집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타이타늄 컬렉션의 겨울 제품은 컬럼비아가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후원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윈터스포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온성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소재 결합으로 활동성을 높이는 등 컬럼비아의 노하우를 담았다. 타이타늄 가을 컬렉션의 주력 제품 ‘발라크로이 재킷(29만8000원)’은 방·투습 기술인 ‘옴니테크’ 2레이어 재킷이다. 전체 방수 지퍼를 사용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도록 과도한 색상 배색, 절개를 피하고 유사한 색상의 배색과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맥스 옥토버페스트 스페셜홈 출시



하이트진로의 올몰트 맥주 브랜드 맥스(MAX)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시즌을 맞아 3년 연속으로 ‘맥스 옥토버페스트 스페셜홈(사진)’을 출시한다. 이는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맥주와 동일 주질을 적용했고, 옥토버페스트에서 사용된 최고급 저먼 노블홀인 미텔프뤼홀을 사용해 독일 정통 맥주의 풍미를 그대로 구현했다. 특히 이번 에디션에는 4월 ‘크림생 올몰트 맥스’로 리뉴얼하며 10년 노하우로 완성된 266초의 부드러운 크림타입이 더해져 기존보다 거품 지속력 및 맛과 향이 업그레이드 됐다. 맥스 스페셜홈(5.5도)은 27기 캔 제품(355ml, 500ml)으로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한정 판매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sizer 특허받은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시저 www.sizer.kr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타구니를 긁고 계시지 않아요?

남성은 신체조건상 음낭과 음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음낭의 아래 사타구니 주변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다습하며 스페그마(지방성남성분비물)등 곰팡이성 유해세균 등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

시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

남성의 사타구니가 습하거나 가려우면 성관계시 여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처럼 남성 실 청결은 여성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 또한 좋은 팬티를 고르는 기준이라 하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끈끈함 없이 보송보송하고 산뜻해야 한다. 남성 기능성 팬티 '시저'는 사타구니, 고환, 음경을 3단 분리하여 땀이 덜 차고 보송하게 유지해 준다. 골프, 등산, 조깅 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 등 모든 남성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시저를 입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쇼핑몰 : www.sizer.kr
문의전화 : 1577-5579

한 손으로 편안하게 주머니형 디자인

팬티 앞면의 주머니 덮개는 소변을 볼 때 허리 밴드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을 위한 3단 분리 디자인

예로부터 남성의 고환을 차갑게 해야 정력에 좋다 하였습니다. 정자를 생산하려면 고환의 온도가 체온보다 2~3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시저는 사타구니와 고환, 고환과 음경, 음경과 하복부가 확실하게 3단 분리 되는 디자인으로 통기가 우수하여 땀이 덜 차고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팬티입니다.



항균, 항습, 항취 ATB-100

물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습기로 인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뛰어난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ATB-100원단에는 은사까지 함유되어 높은 항균성을 지니며 여러번 세탁해도 항균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능성원단입니다.



특허받은 팬티 시저

본 발명은 남성의 음경과 음낭이 각각 격리됨으로써, 땀에 의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남성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발명특허 제 10-1212608호

